

教育學碩士學位論文

유 미리의 작품 속에 나타난
〈駄目なお母さん〉과
〈冷たい第2の祖国〉의 연구분석



2012年 8月

釜慶大學校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郭美玲

教育學碩士學位論文

유 미리의 작품 속에 나타난
〈駄目なお母さん〉과
〈冷たい第2の祖国〉연구분석

指導教授 崔 蓮 姬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釜慶大學校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郭 美 玲

郭美玲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2年 8月



主 審 尹 一 (印)

委 員 崔 蓮 姬 (印)

委 員 金 祥 圭 (印)

목 차

I. 서론	1
1. 작가소개	1
2.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3
3. 연구방향	5
II. 본론	7
1. 작품 속에 나타난 <駄目なお母さん>	7
1-1 『가족시네마』	7
1-2 『비와 꿈 뒤에』	14
1-3 『생명』	22
2. 작품 속에 나타난 <冷たい第2の祖国>	29
2-1. 『물고기가 꿈 꿈』	32
2-2. 『생명』	36
2-3. 『8월의 저편)』	41
III. 결론	49
참고문헌 ·	52

<Troubled mother > and <The chilly 2nd-homeland>

by Yu miri's workpiece

Kwag Mi Lyo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Yu Miri, a Korean Japanese writer, as the first-born daughter with two brothers and one sister, started her own dynamic and valuable life in 1968 in Yokohama and has been grown up in mistreatment and violence by her parents and also bullied by her friends. After dropping at her 1st year of her high school, she had come on the stage as an actress at 'Tokyo Kid Brothers' for about 2 years and then started to write a drama.

『Family Cinema』 gave her 116th Akutagawa Award in Japan.

Many researches on her works generally have showed a criticism-focused as her resources were mainly from repetitive dark sides of family break-ups, adultery, statutory rape, stalking, and suicide. From knowing in depth of her differentiated-personal-history point of view that is somewhat different from normal, the researcher was able to get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world of her whole works.

The 'Differentiated Personal History' triggered the researcher to go on a full research and deeply to analyze her works in detail based on two aspects, <troubled mother> and <the chilly 2nd-homeland>.

First of all, the author analyzed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ther in 『Family Cinema』, 『After the Rain and Dreams』 and 『Life』 for the perspective of <troubled mother>.

In 『Family Cinema』, a mother describing Yu Miri's mother, meet a man while working at a cabaret and leave home to live with the man. Moreover, she, only interested in her better appearance, doesn't care about housework or childbearing. In 『After the Rain and Dreams』, a mother named Tskie, get married with a man during her pregnancy with a different man who were in his own marriage and pursues her own happiness leaving 2-year-old daughter, Ame. After ten years, she tries to live together with Ame's family. In 『Life』, a woman reflecting Yu Miri herself fall in love with an unidentified man and has a baby unexpectedly. She thinks an abortion many times and sometimes abuses her son in her childbearing.

On the other point of view, <the chilly 2nd-homeland>, the researcher examined deeply-roote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in the Japanese society and also bullying in schools through 『What a fish dreamt』, 『Life』 and 『The Further of August』.

Criticism toward the writer and her works may be arisen by the fact that people do not accurately understand her unfortunate life on 'Differentiated Personal History'. Researcher hopes that this paper report will be a cornerstone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her works as well as her life on the basis of the conceptualization 'Differentiated Personal History' so that moving forward more people can get better accessibility to her works.

I. 서론

1. 작가소개

柳美里는 1968년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横浜)에서 재일 한국인 2세로 2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재일한국인 1세대이다. 柳美里는 부모의 학대와 폭력,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 1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이다. 고교 중퇴 후 극단 ‘도쿄 키드 브라더스’에서 2년 정도 여배우 생활을 했으며, 그 후 희곡을 시작으로 집필 활동을 시작한다. 1993년 24세 때 『물고기의 축제』로 기시다 구니오(岸田国夫)희곡상을 최연소의 나이로 수상하였고, 1996년에는 『풀하우스』로 제 18회 노마 문예신인상(野間文芸新人賞)과 제 24회 이즈미 쿄카 상(泉鏡花文学賞)을 수상하였으며, 1997년에는 『가족시네마』로 제 116회 아쿠다가와 상(芥川賞)을 수상하였다.

어릴 때부터의 불우했던 환경들(부모의 별거, 가족의 붕괴, 집단 따돌림, 가출, 퇴학, 자살미수 등)로 인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경험과 체험을 허구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私が魚だしたら、水は痛みだ。痛みがなくなったら、私は書けなくなる。そして書くことで痛みの水位はさらに増していく。私は私を私自身から救い出そうなどと考えてはいない。¹⁾

내가 생선이라고 한다면, 물은 아픔이다. 아픔이 없어진다면, 나는 적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아픔의 수위는 점점 늘어난다. 나는 나를 내 자

1)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 p.11

신으로부터 스스로 구해보자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²⁾

위 인용문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작가 柳美里的 오늘을 있게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고교 1년때 명문 미션스쿨인 요코하마 공립학원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柳美里는 특별히 문학 수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고교 퇴학 후 집에서 2년여 동안 칩거하면서 동서양의 고전과 명저를 수없이 읽었다. 그리고는 좋은 문장이 있으면 노트에 옮겨 적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옮겨 적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별거해 가족이 단절되어 버렸고, 가족 다음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가 친구나 연인이지만, 이러한 관계까지 잘 형성하지 못했다. (생략) 나와 타인과의 사이에는 해협이 있고, 그것을 소설을 적는 것으로 건너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죽으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살고 싶다’란 욕망이 강한지 확인한다. ‘살고 싶다’와 ‘적고 싶다’는, 내게 있어선 같은 의미이다.³⁾라고 소설을 쓰는 동기를 밝힌 적이 있다. 이렇듯 불우한 환경에서 집필활동을 시작한 柳美里의 작품에는 가족의 붕괴, 불륜, 원조교제, 스토키, 자살 등의 어두운 요소가 많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 소설 『폴하우스』 『가족시네마』 『골드러시』 『타일』 『루즈』 등이 있으며, 에세이로 『물가의 요람』 『물고기가 꿈 꾸』 『세상의 균열과 혼의 공백』 등이 있다.

2) 일본원본의 내용은 이하 연구자가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3) 「今月の人—柳美里」 『すばる』 1996年7月, p.165~167

2. 연구목적과 선행연구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이 작가 柳美里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조국상실자의 공허함과 아픔을 끌어안는 의미의 디아스포라로서의 관점을 중시하거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가족 붕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다.

변화영(2007)은 柳美里의 소설을 대항으로 하여 경험을 서사화하는 방법을 1인칭 서술과 3인칭 서술로 나누어 살펴보고, 재일한국인으로서 경험한 자신의 정체성을 서사하는 가운데 주변인으로서의 개인과 가족 및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⁴⁾고 설명하였다.

김경미(2005)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과 柳美里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가족은 어떻게 다른지, 그 실태와 작가가 말 하고자 하는 가족 붕괴의 형태에 관해 『폴하우스』와 『가족시네마』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⁵⁾

또 한편으로, 가족의 붕괴, 불륜, 원조교제, 스토키, 자살 등의 어두운 요소가 많은 내용이라든지, 柳美里 가족을 둘러싼 반복적인 소재로 인한 비판적인 연구도 되어져 왔다.

中村伊知郎는 유미리의 소설은, 대부분이 원패턴이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스토리」의 등장인물도, 자기와 관련이 있었던 실제의 인물이 각색되어져있고, 타인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이 되며, 비논리적인 자기경험의 각색이 많으며, 창조성이 부족하다.⁶⁾ 라고 했다. 그리고, 吳順瑛은 구십년 대에 발표되어진 유미리의 소설 주인공들은, 「불안」

4) 변화영(2007) 「재일한국인 유미리의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45집』

5) 김경미(2005) 「유미리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붕괴」 연구: 『폴하우스』 『가족시네마』 중심으로」, 세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中村伊知郎(2001) 「柳美里小説の反社会性と需要産出構造」, 『東西論文集』

「초조함」「분노」「허탈감」과 같은 감정패턴이 거의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즐거움과 불쾌함의 기복이 양극단적으로 움직이며, 갑자기 상식을 벗어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는 일이 많다.⁷⁾ 라고 했다.

切通理作은 「유미리의 위험성, 바보성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녀는 병자가 아닐까.」⁸⁾라고까지 했다.

또한, 116회 아쿠타가와 상(芥川賞)을 수상할 때 심사 위원이었던 石原慎太郎⁹⁾는 柳美리의 가족 이야기가 지긋지긋하다며 수상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은 柳美리의 작품들만을 접하게 되면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작품들 속에는 붕괴된 가족이야기의 반복, 불륜, 원조교제, 스토커, 자살 등의 주제들과, 기쁨과 불쾌함의 감정이 양극단을 오가며, 돌연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柳美리의 불행한 가정사와 유년시절부터의 이지메 등의 보통의 사람들과 ‘차별된 個人史’를 알게 되면서부터 비판되어지는 작품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현실에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허구의 이야기인 소설을 쓰고, 그래서 또 다시 거처를 찾아 소설을 쓴다는 柳美리와 그녀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시작한 자살시

7) 呉順瑛(2008)「九十年代の柳美里の小説と同時代の日本の家族―「もやし」「潮あい」「家族シネマ」を中心に―」、『日本文化研究・第27집』

8) 「現代作家シリーズ・第三回 柳美里論―「本当の話」をしたのです」『文学界』1996年 9月 切通理作(きりどおりさく、1964年2月21日 -) 일본의 평론가, 각본가. 朝日新聞, 毎日新聞, 日本経済新聞, 時事通信 등에서 시평·서평·컬럼을 집필하였다. 2010년부터 goo-宣ネット道場에서, 「ネットから書店へ」를 테마로 독서방송인 『切通理作のせつないかもしれない』를 개시(30분, 월 2회) <http://www.ja.wikipedia.org/> 참조

9) 石原慎太郎(いしはら しんたろう、1932年9月30日-) 일본의 정치가, 작가, 현 동경도지사(제 14·15·16·17대), 1950년 『태양의 계절』로 제 21회 아쿠타가와 상 수상. 현 아쿠타가와 상의 심사위원이기도 함. <http://www.ja.wikipedia.org/> 참조

도,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어머니와 그녀에게 냉혹했던 일본이란 사회의 두 가지 요소에 착안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駄目なお母さん〉과 〈冷たい第2の祖国〉.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선택되어 버린 어머니, 국적, 환경들에 대해 유년 시절부터 행복이 아닌 불행, 희망이 아닌 절망을 배워버린 그녀가, 작품 속에서 〈불안〉 〈초조함〉 〈자포자기〉 〈정서불안〉 〈심한 감정의 기복〉을 표출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삶의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억압적인 아버지에 실망해 생활을 위해 카바레에 나가지만, 거기서 만난 동창생과 외도를 하며 가족 붕괴를 시키는 〈駄目なお母さん〉을 그린 『가족시네마』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 중에, 다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아 살고 있던 중, 아이가 두 살이 되던 해 홀연히 사라졌다가 십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살고 있는 아빠가 생부가 아니며, 생부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건축 디자이너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가족과 같이 생활하자며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타인의 〈駄目なお母さん〉을 그린 『비와 꿈 뒤에』란 작품을 연구하였다. 또한 유부남의 아이를 가지지만, 그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몇 번의 중절 수술의 갈등을 겪는 柳美里 본인의 〈駄目なお母さん〉을 그린 『생명』의 세 작품을 통해 〈駄目なお母さん〉을 연구하여 분석할 것이다.

과상풍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제외하면 정면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사방에 죽음이 있다고 느낀 시기는 크게 두 번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내 유년시절에 대해 먼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알려진 것처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지메를 당했다. 내가 급식시간 당번을 서면 모두 밥을 안 먹겠다고 교실을 나가며 보이콧을 했고, 수영시간에 내 차례가 되면 토하는 시늉을 하며 야유를 보냈다. 선생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기보다 나를 당번에서 제외시키거나 아이들과 함께 웃곤 했다. 그것이 점점 심해져 학교에 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공포가 됐고, 중학교 때는 학교 앞에 내리면 과 호흡 등이 나타나 양호실에 갔다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다반사였다. 결국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무기정학의 형태로 학교를 쉬게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자살을 몇 번씩 기도했다¹⁰⁾는 인터뷰 내용처럼 柳美里에게 가혹했던 <冷たい第2の祖国>를 『물고기가 꿈』에서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받은 차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생명』에서는 ‘현실의 성인 사회’에서 겪는 재일한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을 중심으로, 『8월의 저편』을 통해서 柳美里 개인의 근원, 재일한국인의 근원을 찾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당연히 되었던 뿌리 깊은 차별의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작품들을 통해 ‘재일한국인 柳美里’가 존재해야만 했던 어제와 오늘을 분석·연구하여 지극히 이기적이고 한심한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재일한국인의 여류작가 받은 아픔과 슬픔이 배어있는 그녀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작가의 문학에 대한 精神을 알아보고자 한다.

10) 「재일한국인작가 유 미리」 『주간한국, 생활/문화』 2011년 3월 16일

II. 본론

1. 작품 속에 나타난 <駄目なお母さん>

1-1 『가족시네마』

이 작품은 1996년에 발표되었고, 그 해 하반기 제 116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20년 만에 만나 영화 속에서 원만한 가족을 연기하는 모습을 그린 柳美里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불리어져 오고 있다. 이 소설에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과 나로 구성된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실제 가족이 작품 속의 인물로 등장한다. 작품 속의 ‘나(모토미)’의 가족은 부부가 별거한 상태로, 폭력과 도박으로 생활비도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카바레의 호스티스로 일하러 나가게 된 곳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만 살림을 차려 동거하게 되면서 네 명의 아이 중에 두 명만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된다. 그렇게 19년간이나 붕괴된 채로 흩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가족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이벤트 회사 직원인 장녀인 ‘나’는 그 영화 촬영이 자신의 가족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자신의 생일 파티가 촬영의 시작이라는 것은 짐작하지도 못했다. 남동생 가즈키를 제외한 가족들이 열성적으로 촬영에 참여하려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이 촬영이 이미 흩어진 가족들의 어색한 모임으로 거추장스러울 따름이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배우인 여동생이 잡담삼아 가족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감독 가타야마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그 경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영화”를 찍겠

다고 한 것이었다.

여동생은 ‘나’를 제외한 가족에게 이미 허락을 받았다면서 영화 제작에 협조해 줄 것을 강요한다. 가족이란 어느 집이나 다 연극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여동생의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영화에 출연하라는 여동생의 요청에 ‘그 사람들도 출연하느냐’고 묻는다. 부모는 이미 ‘나’에게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보통의 가족은 ‘나’의 가족만큼 연극적일 수 없다. 연극적인 요소가 없는 보통의 가족을 영화화하지는 않는다. ‘나’의 가족은 ‘나’가 부모를 ‘그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특이한 형태의 가족인 셈이다.

영화의 시작은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식구들이 모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딱 정해진 각본도 없이 ‘나’의 가족이 보여주는 그대로 영화의 작업은 진행된다. 그러나 영화의 작업이 진행될수록 ‘나’의 가족은 원래의 모습과 다른, 보통의 가족에서 볼 수도 있을 법한 ‘이상적인’ 가족 관계로 조금씩 수정되고 있음을 ‘나’는 발견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동생들은 동생들대로, 각자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작위적으로 연출해 내는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의 작위성 속에서 ‘나’는 가족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아버지의 폭력에도, 어머니의 성적방축이 초래한 치욕에도, ‘나’를 비롯한 형제들은 그럭저럭 견디어왔다. 비굴할 정도로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상은 대략의 줄거리 소개이다.

이 작품 안에서 柳美里는 자신의 〈駄目なお母さん〉에 대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표현했다.

母はキャバレーに勤めはじめて二年ほど経ったごろ、客のひとりだった藤木と深い関係になった。

そしてある夜、父の留守を狙って、まとめておいた荷物を藤木の車に積み込み、私と弟を連れて家

を出た。妹は玄関の柱にしがみついて泣きじゃくり外に出ようとしなかった。母はあとで迎えにくるからと
いい含めて車に乗り、藤木が用意していたマンションに向かったのだった。11)

어머니는 카바레에 일한지 2년 정도 되던 때, 손님 중의 한사람이었던 藤木와 깊은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미리 싸 두었던 짐을 藤木의 차에 싣고, 나와 남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여동생은 현관 기둥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지만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여동생에게 나중에 데리러 온다고 타이른 후, 藤木가 준비해 둔 아파트로 향했다.

이렇게 집을 나간 후에도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에는 늘 소홀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만 열심이었다. 매일 밤 목욕 전에 콜드 크림으로 얼굴과 전신을 한 시간이나 걸쳐 마사지를 하고, 가슴에는 실리콘을 주입하여 부자연스러운 볼륨감으로 나이를 속이려하고 있었다. 마흔 다섯 나이에 유방확대 수술을 받는 등 필사적으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할머니가 쉰 살이 넘어서 유방 확대 수술을 하였고, 할머니의 성에 대한 집착력에 어머니도 공감하는 구석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나’는 어머니의 가슴속 실리콘에 창피함과 수치심으로 몸을 떤다. 영화 출연 도중 틈틈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치는 모습에서, 가족 붕괴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족을 보듬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은 찾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毎晩入浴前にコールドクリームで顔と全身を一時間もかけてマッサージし、必死に年齢を拒んでいるのだ。シリコンを注入した乳房は湯で隠れているが鎖骨のすぐ下から不自然に盛りあがっているのがわかる。12)

매일밤 입욕전에 콜드 크림으로 얼굴과 전신을 한시간이나 마사지를 하고, 필사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실리콘을 주입한 가슴은 탕 속에 들어가 있어 숨겨져 있지만 쇠골 아래로부터 부자연스럽게 부풀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

11) 柳美里(1997)『家族シネマ』講談社,p.68

12) 위의 책,p.85

다.

母はエントランスホールのなかでコンパクトを覗いて口紅を直し、空を睨んでは唇をぱくぱくさせている。13)

어머니는 입구 중앙홀에서 컴팩트를 꺼내보면서 입술을 다시 바르고, 천정쪽을 보면서 입술을 뻐끔거렸다.

그리고 ‘나’ 뿐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자신들의 <駄目なお母さん>으로 인해 가슴 깊이 심리적인 상처가 뿌리내려져 있다.

어머니가 밤에 일하러 나간 뒤에는 낮에 잠자기 때문에, 좀처럼 빨래를 할 수가 없었다. 어느 체육 수업이 있던 날 엄마 속옷을 입고 있던 남동생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오카마’¹⁴⁾라고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そのころまで私はよく父や弟のブリーフを穿いて、学校に行った。母は水商売をしていて、夜働いて昼に睡眠をとるので、なかなか洗濯ができなかったのだ。男の下着がきたときは、弟たちは私や妹や母の下着を穿いた。体育の授業があるときに母の下着を穿いていった弟は、同級生に「おかま」というあだなをつけられてイジメられた。15)

그 무렵까지 나는 자주 아버지와 남동생의 속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어머니는 밤에 일하러가기 때문에, 낮에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좀처럼 빨래를 할 수가 없었다. 남자 속옷이 다 떨어질 때는, 남동생은 나랑 여동생이랑 어머니의 속옷을 입었다. 체육수업이 있을 때 어머니의 속옷을 입고갔던 남동생은, 학교친구들에게 「오카마」란 별명이 부쳐져 이지메를 당했다.

여동생은 고 1때 학교를 중퇴하고 소극단의 오디션에 나가서 합격했다.

13) 柳美里(1997) 『家族シネマ』 講談社, p.12

14) おかま(オカマ) : 基本的には男性同性愛者を指すが、異性装をする男性や女性の姿を装う男性などを一括して誤用される事がしばしばある。侮蔑としても使われる。

<http://www.ja.wikipedia.org/> 참조

15)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 p.16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빠른 시간에 주인공을 맡게 돼, 대기실에 많은 팬들이 그녀를 만나러 오기도 했다. 극단을 그만두고 2년 전 프로덕션에 소속하게 되면서부터, 2편의 성인 영화에 주연으로 겨우 출연했을 뿐이다. 한번씩 광고의 엑스트라 섭외가 대부분이라, 생활비는 광고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바로 밑의 남동생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사회적 규범하고는 거리가 먼 청년이 되어버릴 것 같다. 남동생은 스물일곱 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대학생이다. 알고 있는 한 친구도, 사귀는 여자 친구도 없다. 아버지가 한 번 더 옛날처럼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신축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도 없으며, 최근에 여동생한테 듣기로,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안하고, 지금처럼 아버지에게 빌붙어 살게 뻔하다. 남동생은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현실을 이륙해서 망상의 세계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욕망이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리면, 자아는 붕괴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요리도 거의 하지 않아,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여동생과 나는, 뭔가 먹을 것이 없을까하고 집안을 살살이 뒤졌지만, 김치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던 여동생이 부엌 구석구석을 뒤진 끝에 발견한 것은 한 컵 정도의 쌀이 든 보따리였다.

私と妹はお腹がすいたので、何か食べ物がないかと家中探したが、キムチの欠片すら見つからない。私は空腹が高じて、孤島に取り残されたような絶望的な気分になっていった。あきらめきれない妹はごそごとと台所の隅を探しつづけ、ついに、「お姉ちゃん、あったー」と、一合ばかりの米が入った袋を振りかざした。¹⁶⁾

16) 柳美里(2000)『魚が見た夢』新潮社,p.41

나와 여동생은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것이 없을까하고 집안을 살살이 뒤졌지만, 김치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나머지, 외판 섬에 남겨진 것 같은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포기하지 않던 여동생은 부스럭거리며 부엌 구석 구석을 뒤진 끝에, 「언니 찾았어-」라며, 한 컵 정도의 쌀이 든 보파리를 번쩍 쳐들며 나를 불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도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남자가 생겨 가출을 하고 20년 만에 ‘영화’로 가족이 다시 재회하자, 나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스즈키 구에 있는 옛날 가족들이 살던 집에 대한 욕심을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영화 출연에 응한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신축한 옛날 집을 어떻게든 손에 넣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아니면 아예 팔아버려도 좋다고까지 얘기한다.

「大事な相談って、それ?」(中略)「都筑区の家よ」抜け目ない視線で私を見据えた。唇は微笑みを象ろうかどうしようか迷って曖昧に蠢いている。「あの家担保にしてお金借りるの。なんなら売っちゃってもいいわ」¹⁷⁾

「중요한 상담이 뭘데, 그거?」(중략) 「都筑区에 있는 집말이야.」라고 진지하게 나를 응시했다. 입술은 미소를 뽐낼지 어쩔지 주저하는 애매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거야. 여차하면 팔아버려도 되지 뭐.」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의 집인데 라고 반박하는 나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들 몫이라고. 어머니와 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남은 네 사람의 차지라고 했다. 결국 아버지는 은행인 셈이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는 잠시 맡아 주고 있을 뿐이고, 죽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차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 정말 편리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17) 柳美里(1997)『家族シネマ』講談社,p.66

그리고 작품 『8월의 저편』에서는 외조부가 어머니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 장면이 있다. 아버지 우철의 눈에도 자신의 딸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평범한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철은 매장에 있는 신희¹⁸⁾를 보았다. 해마다 정희¹⁹⁾를 닮아간다.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 포악한 성격까지 고스란히 닮아, 엉덩이를 만지려는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일도 있다. 정희가 아내나 엄마로 걸맞지 않았던 것처럼 신희도 집안에서 살림이나 할 여자는 아닌지도 모르겠다.²⁰⁾

‘나’는 육아와 가사를 포기하고,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駄目なお母さん>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복수를 했다. 나와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마를 닮았다고 말하며 서로를 헐뜯었다.

私と妹は小さいころから、ママみたい、という言葉遣って互いを貶しあった。似ていると思われるところを並べて、必ずとっ組み合いの喧嘩にまで発展するのだ。²¹⁾

여동생과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같다, 란 말로서 서로를 폄하시켰다. 닮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열거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곤 했다.

이상으로 작품 『가족시네마』를 통해 <駄目なお母さん>을 고찰해 보았다. 이 작품에서의 ‘나’와 마찬가지로 柳美리는 어머니 앞에서는 정면으로 그 미움의 감정을 표출해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외조부의 친구 분들이 柳美리를 처음 볼 때, 모두들 닮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녀 역시 외조부의 젊었

18) 『8월의저편』에 나오는 柳美리의 어머니의 이름.

19) 『8월의저편』에 나오는 柳美리의 외조모의 이름.

20) 유미리·김난주(2004) 『8월의저편下』 동아일보사, pp.364~365

21) 柳美里(1997) 『家族シネマ』講談社, p.79

을 때의 사진을 보고 납득이 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머니와 닮았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어머니보다 柳美里 자신이 더 예쁘다고 자만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에 대한 증오의 감정 때문인지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정면으로 어머니를 그 미움의 감정을 표출해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를 증오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²²⁾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했던 柳美里였기에 미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柳美里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품고 있던 미움의 감정을 정면으로 부딪혀 보았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된다.

1-2. 『비와 꿈 뒤에』

이 작품은 2005년에 발표된 단행본으로, 슬프고도 따뜻한 기담(奇談)으로, 일본에서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는 ‘裏切’(배신)’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츠키에(月江)라는 어머니가 딸 아메(雨)를 배신하는 내용에 중점으로, 본인의 어머니와는 다른 또 다른 모습의 타인의 〈駄目なお母さん〉의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6학년생인 아메(雨)는 곤충 사진작가인 아빠 토모하루(朝晴)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엄마 츠키에(月江)는 아메가 두 돌 되는 생일날 아침 사라졌고, 아빠는 촬영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

아메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국어사전을 뒤적이거나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 받는다. 어느 날, 아빠가 나비를 촬영한다고 타이완으로 가더니 2주 동

22)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p.68

안이나 연락이 두절된다. 연락이 없는 아빠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아메는 우연히 서랍 속을 열어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지금 아빠의 나이가 28살 밖에 안 되었으며, 아빠 나이 겨우 16살 때 자기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엄마는 아빠보다 11살이나 연상이라는 것.

2주 후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빠..... 그런데 그 이후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전에 아빠가 찍었던 스티커 사진에서 아빠가 사라지고, 아메는 수업참관일에 아빠가 온 것을 분명히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단다. 아메가 음식 준비를 하다가 손을 데는 바람에 알게 된 옆집 여자, 고야나기 아키코란 옆집 여자도 이상하기만 하다. 잠겨 있는 문으로 드나드는 것도 그렇고, 8년이나 사귀 약혼자가 아키코 씨 집 근처를 서성이는데 만나주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게다가 아빠랑 아키코 씨와 분명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엔 그들이 없고 빨간 불덩이뿐이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아메의 엄마. 아메는 엄마에게서 아메의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빠와 아키코 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엄마의 충격적인 고백. 이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메를 지켜주겠다던 아빠의 꿈같은 약속을 떠올리지만 아메는 예감보다 확실한 슬픔의 냄새를 맡는다.

아메는 표면상으로는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속 한편으로는 엄마의 부재(不在)에 대해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직은 보호받아야 될 아이이다. 학교의 담임선생님은, 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왜 엄마가 없어서 불쌍한 건가? 라고 자문해본다.

オッチは、わたしのことをかわいそうがって、励まそう、なぐさめようってほめることを探しまわってるだけなんですよ。職員室にだれもないとき、オッチの机の引き出し開けてエンマ帳

見ちゃったもん。〈父子家庭。父は写真家（昆虫）で、撮影で不在がち。2歳の時に母失踪。離婚は未〉だから、かわいそうなの？²³⁾

담임선생님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걱려하고, 위로하려고 칭찬 거리를 무리하게 찾고 있을 뿐이야. 교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담임선생님의 책상 서랍을 몰래 열어서 교무수첩을 봤는데, <편부가정, 아버지는 곤충 사진 작가이며, 촬영으로 인해 집을 비울 때가 많음. 두 살 때 어머니 실종. 이혼은 아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그래서 불쌍한 건가?

아무리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엄마의 부재와 잦은 아빠의 출장으로 아직 12살 소녀의 가슴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언제까지 외국에 있냐고, 10일 전에 호텔에서 전화해서 잘 있는지,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냐고 해서 잘 있다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지금 집에 올 수 없다면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전화해달라고 속으로 외친다. 외로움에 지친 소녀의 절규인 것이다.

(前略) お父さんったらあ！いつまで外国に行ってるんだよ！10日前にホテルから電話くれて、元気か、ちゃんと食べているかってさあ、元気、食べてるよって答えるしかないじゃん！おーい、お父さん！早く帰ってこい！帰ってこれないんだったら眠る前に5分でいいから電話しろ！²⁴⁾

(전략) 아빠는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외국에 가 있는거야! 10일전 호텔에서 전화를 걸어와, 잘 있냐고, 잘 챙겨먹고 있냐고 물어왔지. 그래서 건강하다고, 잘 먹고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아빠! 제발 빨리 돌아와요! 올 수 없으면 내가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전화해줘!

그리고 아빠가 출장 시, 집에서의 식사는 편의점의 도시락이 중심이다. 한창 성장기의 열두 살의 나이에 엄마의 정성어린 손 요리가 아닌 편의점 렌지에 돌려 데워진 도시락을 먹는 아이였다.

23) 柳美里(2005)『雨と夢の後に』角川書店,p.35

24) 위의 책,p.21

「お弁当あたためますか?」

「はい」

「714円になります」²⁵⁾

「도시락 데워드릴까요?」 「예」 「714엔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출장으로 부재중일 때는 외로움과 동시에 두려움 또한 아미를 힘들게 했다. 커튼을 치고 온 집안의 전기를 다 켜고, 그래도 무서워서 소리를 내어 밝은 노래도 불러보지만, 자신의 소리마저도 무섭게 느껴진다. 아빠 무서우니까 빨리 와 달라고, 누군가와 떠들고 얘기해서 이 무서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아미는 혼자 생각하며 무서운 밤을 보냈던 것이다.

자신의 딸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토모하루에게 맡기고, 이렇게 외로움을 심어준 츠키에의 〈駄目なお母さん〉의 모습은 아빠 토모하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타나있다.

雨に濡れて歩いていたら、公園の前に電話ボックスがあって……あのころはまだケイタイなんて普及してなかったから、いまより電話ボックスが多かったんだよ……電話ボックスのなかで女のひとが泣いていた……ポロポロとかシクシクなんてもんじゃなくて、外に泣き声漏れるほど……おれは生まれてはじめて号泣してるひとを見……足が止まって……彼女が気づいてくれるまで、おれは黙って雨に打たれてた……彼女にはつきあってるひとがいたんだよ……妻子あるひとで……電話で別れ話をして……ふたりで近くの喫茶店に入った……おれは雨をポタポタ……彼女は涙をポタポタ……客も店のひともへんなふたりだと思っただろうな……でも話して……話して……もっと知りたいと思った……もっと……なにもかも……知りたい……解りたい……²⁶⁾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공원 앞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아직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라, 지금보다 전화 부스가 많았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훌쩍거리는 게 아니라, 밖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려 올 정도로...나

25) 柳美里(2005) 『雨と夢の後に』 角川書店, p.22

26) 위의 책, pp.86~87

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흐느껴 우는 여자를 보고, 발이 멈춰져, 그녀가 알아차려 줄 때까지, 난 묵묵히 비를 맞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처자가 있는 사람으로, 전화로 이별을 했던 것이다. 둘은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다. 나는 빗물이 뚝뚝, 그녀는 눈물이 뚝뚝, 손님들도 가게 주인도 이상하게 둘을 생각했겠지. 얘기해봐, 얘기해, 더 알고 싶어졌다. 뭐든지 알고 싶어졌다, 알고 싶다.

츠키에를 처음 만났을 때 토모하루는 아직 중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다. 그런 학생에게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처자가 있는 사람으로, 전화로 이별을 했던 것이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무리 자기의 처지가 힘들고 절박하다고 해도 이성을 가진 스물 여섯의 어른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을까? 란 의문이 들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츠키에의 〈駄目なお母さん〉의 모습은 다음 장면에서는 정점에 달하게 된다.

아메가 두 돌 때 홀연히 사라졌던 츠키에가 십 년 만에 나타나, 출생의 비밀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아메에게 얘기한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토모하루가 아빠가 아니라 코오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디자이너라고 밝힌다. 진짜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부인과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서로 너무 좋아해서, 알면서도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아메를 임신했다고 얘기한다.

「ごめんなさい……許して」「ずっと会いたかったの……忘れたことなんてない……」(中略)

「あのね、朝晴くんは、あなたのお父さんじゃないのよ」「あなたのお父さんは別にいるの。

向揚さんって言ってね、建築デザインの世界では有名なひとよ。向揚さんと出会ったときには、もう奥さんとふたりの息子さんがいたんだけど、お互いに気持を抑えることができなくて、つきあいはじめたの……そして、妊娠した……雨よ」²⁷⁾

「미안 ……용서해줘」「정말 보고 싶었어……잊은 적이 없단다……」(중략)

「사실은, 토모하루는, 네 진짜 아빠가 아니야.」「진짜 아빠는 따로 계셔. 코오요

27) 柳美里(2005)『雨と夢の後に』角川書店,pp.120~121

씨 라고 세계적인 건축디자이너로 유명한 분이야. 코오요씨랑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고, 서로 너무 사랑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던단다. 그래서 계속 만났고……그리고 나서, 임신했어 ……바로 아메 너야」

아직 보호받아야 할 12살의 여자 아이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십년 만에 나타나 이런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는 츠키에의 〈駄目なお母さん〉의 모습에 아메가 받은 충격은 어떠했을까? 소녀는 눈물로 머리카락이 엉켜 붙어 있는 얼굴을 들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만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만약, 지금 내가 자살한다면, 절대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라고 아메는 생각해 본다.

츠키에가 이토록 〈駄目なお母さん〉 인데도, 아무것도 몰랐던 아메는 그동안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 대해 막연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의 지식들이 다 그러하듯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지만, 물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아빠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겠지라고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역시 아빠 입을 통해서는 듣고 싶지 않았다. 아메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츠키에이며,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메는 츠키에가 이렇게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엄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知りたいと思うときもあるけど、訊きたいと思ったことは一度もない。フツーに話してくれれば、わたしもフツーに聞けるかもしれない。でも、やっぱり、お父さんの口からは聞きたくない。いつか、お父さんがかな……わたし知ってるんだ、このひとの名前……これもほんと偶然なんだけど、連絡帳にハンコが必要だったから、お父さんの机を開けたら、奥のほうに小さな木箱と母子手帳が入ってたの。木箱には臍の緒っていうんですか？あれが入ってて、母子手帳にはこのひとの名前が書いてあった。
月江。28)

알고 싶었지만, 물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 해 준다면 나도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역시, 아빠 입으로 듣
고 싶진 않아. 언젠가 아빠가……난 알고 있어. 이 사람 이름……정말 우연히인데, 학
교 알림장에 도장을 찍어야 해서 아빠 서랍을 열었을 때, 서랍 안쪽에 텃줄이 든
조그만 나무상자와 육아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 안에 적혀져 있었어. 츠키에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메가 츠키에를 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
쳐진다. 배가 부른 모습에서 이미 상상은 했지만, 엄마는 곧 동생이 태어날
거라며, 아직 토모하루와 자신은 법적으로 부부로 되어있어서 정식으로 이
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혼서류가 든 봉투를 내밀며
토모하루에게 표 해놓은 곳에 사인과 도장을 찍고 답신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달라고 아메에게 부탁한다. 아메의 심정은 그야말로 복잡했을 것이다.
십년 동안 친아빠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토모하루가 자기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사실, 십년 만에 나타난 엄마, 동생이
태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친 아빠가 존재하며, 같이 살자고 하는 것들. 아
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메는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あのね、お父さんとお母さん、法的にはまだ夫婦なの……赤ちゃんが生まれる前に正式に離婚
しなきゃならないのよ」(中略)「その中に離婚届が入っています。これをお父さんに渡してちょうだ
い。お父さんがサインするところと判を押すところは鉛筆で囲ってあるわ。渡してくれるだけでいい
の。返信用封筒も入ってるから」

いま、この瞬間、どこかに消えてしまいたい。 29)

「사실은, 토모하루와 엄마는 법적으로 아직 부부야……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정
식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중략) 「그 봉투 안에 이혼 서류가 들어있어.
그 서류를 아빠에게 전해 줘. 아빠가 사인해야 할 곳과 도장을 찍어야 할 곳에 연필

28) 柳美里(2005)『雨と夢の後に』角川書店,p.26

29) 위의 책,p.120

로 표를 해 놓았단다. 전해주기만 하면 돼. 답신용 봉투도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

그런 후,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함께 즐겁게 살아보자는 〈駄目なお母さん〉 츠키에의 제안에, 아메는 자기의 마음을 정정당당하게 표현하며 슬픈 이별을 고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핏줄은 달라도 내 아버지는 토모하루 한사람이며, 10년간 아빠가 날 길러준 것과, 10년간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녕이라고 한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駄目なお母さん〉 츠키에가 자신의 분신이어야 할 딸에게 이렇게 슬픈 이별을 통보받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한다.

「血の繋がりがなくても、わたしのお父はひとりしかいません」³⁰⁾

「本当のことは、10年間お父さんに育ててもらったことと、10年間母親が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けです...さようなら」³¹⁾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내 아빠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10년 간 아빠가 날 길러준 사실과, 10년 간 엄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얼마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등기 우편에는 츠키에가 제적된 호적등본이었다. 사실은 츠키에가 건네 준 이혼서류에 사인과 도장을 찍은 건 아메였다. 이 서류가 〈駄目なお母さん〉 츠키에에 대한 아메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30) 柳美里(2005) 『雨と夢の後に』 角川書店,p.123

31) 위의 책,p.124

1-3. 『생명』

어느 날 柳美里가 미혼모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생명』은 그녀가 유부남과 사랑을 하여 아이를 가지고,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험난하고 혹독한 과정을 고백한 작품이다.

『가족시네마』에서는 ‘나’를 통해 본 본인의 어머니를, 『비와 꿈 뒤에』 타인의 어머니의 통해 〈駄目なお母さん〉을 보여준 柳美里가 『생명』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駄目なお母さん〉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柳美里는 자주 자신의 평생 독신을 고수할 거라고 얘기해왔다. 그리고 적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여동생이나 남동생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도 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안겨준 비참한 과거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한 복수일 거라고 했다. 그런 그녀가 작가 생활의 절정기인 1999년, 한 남성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아기를 임신하게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은 배신을 반복, 마침내 이별을 하게 되고, 절망의 늪 속에 빠지고 만다. 한 때 중절과 자살의 기로에서 신음하던 그녀는, 애인이자 스승이었던 히가시 유타카가 딸기 암환자임을 알고, 자신의 새 생명과 꺼져가는 히가시의 죽음을 구하려고, 히가시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눈물겨운 간병을 한다. 히가시는 또 그녀의 새 생명을 위해 한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히가시는 연극계의 리더로 그녀를 키워준 은인이자 스승이요, 애인이기도 했다. 함께 보낸 시간으로 따져 보면, 부모 형제와 지낸 세월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히가시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중절 수술을 했을지도 모른다.

『생명』이 출간되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고, 일본의 신문 방송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원로 작가들과 예술계의 인사들이 찬사

를 보냈다고 한다. 일본의 원로작가이며, 삭발하고 불문에 입문한 세토우치 야쿠초우(瀬戸内寂聴)³²⁾는 “죽어가는 생명과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과의 마치 릴레이 경주의 바통 터치처럼, 극적인 시간을 이토록 애달픈 사랑과 기원을 담아, 성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써 낸 柳美里的 승고하다고까지 느껴지는 작가적 역량에 감동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책임져야 할 어머니로서의 柳美里도 이렇게 찬사를 받을 수 만 있을까. 엄마로서의 준비는 물론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본문 중에 엄마로서의 준비 부족과 수 없이 나오는 중절이라는 무책임한 단어를 반복하는데, 柳美里的 갈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 하고자 한다.³³⁾

그 사람에게서는 뭐라고 말할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낳든, 중절을 하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임신했다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다.(21쪽)

앞으로 2년간의 집필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었고, 그 초판 인세를 미리 받아 쓴 형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23쪽)

“아무래도 중절 수술을 해야겠어.”

“그럼 무엇 때문에 입원한 거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우리 헤어지자. 열쇠는 돌려줘.”(29쪽)

이 세상에 태어날 새 생명은 축복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柳美里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그가 아

32) 瀬戸内寂聴 (せとうち しゃくちょう, 1922년 (大正11年) 5월15일 -), 일본의 소설가. 1997년 문화功勞者, 2006년文化勲章 수여. <http://www.ja.wikipedia.org/> 참조

33)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

내와 자신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 밤마다 복용하던 수면제의 양이 늘어나고,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계속 체중이 떨어져 40킬로그램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말랐다. 이 사실은 柳美리는 새 생명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태 속에 자리 잡음을 하고 있는 아기 앞에서 <중절>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이러한 柳美리의 모습이야말로 〈駄目なお母さん〉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심지어는 태속의 아기로 인해 집필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닐까하고 심한 불안감에도 빠지게 된다.

아기가 태어나면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이젠 쓰지 못하는 게 아니냐. 정말로 쓰고 싶은 걸까. 이제 죄다 써 버린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고, 한 줄씩 써 나갈 때마다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는데, 이번 불안감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워 공상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날개가 뜯겨 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현실에서 떠오를 수가 없으면, 발을 헛디뎠다. 현실에서 미끄러져 전락하는 수밖에 없다.³⁴⁾

그러나 柳美리는 히가시의 말기 암 선고 후, 한 생명의 종말을 막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또 하나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생명의 탄생과 재생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다 바치겠다고 결심한다.

“2000년 1월 17일 오전 9시 24분. 3,060그램의 사내아이가 태어났다.”³⁵⁾

퇴원을 눈 앞에 둔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서,

34)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 pp.186~187

35) 위의 책, p.219

아기의 잠든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았다.³⁶⁾

그러나 별 준비도 없이 맞이한 엄마였기에 퇴원을 앞둔 柳美里는 모든 게 불안했다. 병원에서는 젖병도 씻어서 소독해 주고, 배내옷도 세탁해 주며, 목욕도 아침마다 시켜준다고 퇴원을 미루고 싶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히가시의 격려도 있었기에, 조산원에서 비디오로 목욕시키는 공부도 하고, 우유의 온도를 맞추어 먹이며, 먹인 후 트림을 시키고, 밤중이라도 잠자면서 땀을 흘리면 일어나 배내옷을 갈아입히는 등 하룻밤 사이에 눈 밑이 거스름해져 있는 날도 있을 정도로 열심을 내어보았지만, 역시 자신이 받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서툴렀다. 그때의 심정을 본문 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간병, 육아, 집필-. 우리가 올라 탄 방주는 바다로 나가자마자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나 기우뚱거렸다. 어떻게 해서든 차례차례 파도를 이겨 내고 침몰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고 갈망하지만, 해도(海図)도 나침반도 없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육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바다는 온통 암흑과, 기분 나쁜 어둠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³⁷⁾

이런 지극히 보통의 어머니의 모습도 잠시, 2008년 2월에 자신의 블로그³⁸⁾에 “아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마구 때린 후 학교를 쉬게 했고, 별로 아침과 점심식사도 주지 않았다.”라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우는 아들의 사진을 올렸다.

36)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256

37) 위의책,p.269

38) 유미리 블로그 주소 <http://blog.qubi.com/ymirimiri/trackback/1>

08年 2月 04日 16:54

あまりにうそつきなので（次から次へと次から次へとうそをつきつづける）朝7から15時までひっぱたきまくり、学校を休ませ、罰として朝食も昼食も与えていません。

いま息子のいうことが本当か、彼にたしかめに帰ってもらっています。

もし、それもうそだったら千葉のホテルに戻ります。

茸野郎ッ！³⁹⁾

너무 심한 거짓말쟁이라(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아침 7시부터 15시까지 계속 때려, 학교를 쉬게하고, 별로 아침도 점심도 주지 않았습니

다. 지금 아들이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거짓말이라면 치바의 호텔에 돌아갈겁니다.

茸녀석!

이 글을 읽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柳美里는 다음날 다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블로그에 올린 사진과 글은 넓은 의미의 ‘픽션’이라며, 어떤 사진에 어떤 글을 적을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사람의 감정을 얼마만큼 뒤흔들 수 있을지를 계산해 감정적인 표현을 고르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아들에게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버릇이 있어 평소에도 주의하고 있었지만, 도쿄 디즈니랜드로 여행 갔던 날 호텔에서 아들의 머리카락이 잘려있었고, 욕실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사용해서 잘랐는지 등에 대해 아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나 몇 번인가 세게 때렸다고. 또한, 학교를 쉬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들이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한 가위를 찾는 일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놓친 것뿐 아들은 계속해서 가위를 호텔 창밖으로 던졌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침대 위에서 손톱깎이로 아들의 손톱을 잘랐던 일을 생각해 냈고, 아들에게 혹시 이것으로 잘랐는지 물었더니 어떻게

39) 유미리의 블로그 중 오늘의 사건(今日のできごと)에서 발췌 2008년2월4일자

알았느냐고 말해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더 비판들을 쏟아냈고, 柳美里는 비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해명에 나섰다. 얼마 후 일본의 인터넷뉴스 ‘J-CAST’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아들의 뺨을 몇 번 세게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그녀가 일본 NHK 방송에서의 인터뷰에서 10년 전 아이가 태어난 후 학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고백을 했다.

“自分がわが子に虐待を始めたのだ。これこそが恐ろしい虐待の世代間連鎖だった⁴⁰⁾……”

“내가 내 아이에게 학대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학대의 세대간 연쇄였다고……”

육아와 가사를 포기하고,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본인의 생모의 〈駄目なお母さん〉의 모습을 작품 속의 ‘나’를 통해 『가족시네마』에서 柳美里는 담담하게 그렸다. 그리고 『비와 꿈 뒤에』에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두 살 난 딸까지 버리고 가출해서, 십년 만에 나타나 같이 살자고 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츠키에를 통해 타인의 〈駄目なお母さん〉을 표현했다. 그런 엄마들을 비난하듯 작품에 등장시키던 柳美里는 『생명』과 자신의 블로그에서 〈駄目なお母さん〉의 자기 모습을 고백하였다.

柳美里는 딸과 어머니에 대한 관계를 『물고기가 꿈 꿈』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가지는 생각은 많은 적든 앰버벌런스⁴¹⁾라고 했다. 어머니와 딸, 여

40) NHK. 世代間連鎖を絶つ! 「虐待カウンセリング」作家・柳美里の500日のドキュメント
2011년5월15일 방송

자와 여자가 서로 꼬이게 하는 뭔가가 있다. 딸이 남자와 성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예감하는 어머니는 안절부절 하며 딸의 귀가를 기다리는 두려움은, 어머니가 딸에 의해 자신의 안에 있는 <여자>가 부인되어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딸 속에 있는 <여자>를 부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와 딸로서 완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 직시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모녀관계의 풀 수 없는 애증이 생겨나는 것이라 했다.⁴²⁾

이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딸도 엄마의 모습 속에서 <여자>를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세 작품 속의 <駄目なお母さん> 들 또한 어머니로서의 현신적인 일반적인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안에 있던 <여자>의 부분을 더 중시하였던 것이다.

『가족시네마』에서의 ‘나’의 어머니는 육아와 가사에는 관심도 없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 가슴 성형을 하고 항상 외모에만 신경 쓰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가정도 버리는 너무나도 <여자>만을 추구해 온 인물이다. 이로 인해 ‘나’와 ‘나의 형제들’은 상처받고 규범적인 사회인으로 자립에 실패하게 된다.

『비와 꿈 뒤에』에서의 츠키에도 자신의 사랑을 좇아 두 살 된 딸도 매정하게 버리고, 결국 상대방 남자의 가정도 파탄시키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지극히 자신 속의 <여자>에 충실한 인물이다. 이러한 츠키에를 아메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츠키에에게 이별을 고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柳美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명』에서 그녀는 새 생명에 대한 책임과 즐거움보다는 임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41) ambivalence-같은 대상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 등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 품는 일. 양면가치, 양면가치 감정. 최 태경(2001) 『동아프라임 한영사전』 두산동아, p.74

42)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 p.75

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자의 마음을 임신이란 명목으로 잡아두려고 하였다. 결국 임신으로 인해 남자가 떠나가자 중절이라는 선택을 결심하기 까지 한다. 이런 모습에서 柳美里 또한 자기 속의 <여자>를 어쩔 수 없이 발견해 버린 것이라 여겨진다.

이상으로 붕괴된 가족이야기의 반복, 불륜, 원조교제, 스토크, 자살 등의 주제들과, 비논리적 자기경험의 각색과 창조성 부족의 비판을 받아왔던 柳美里의 작품들의 집필 배경요소 중의 하나인 〈駄目なお母さん〉을 작품 속에서 고찰해 보았다.

2. 작품 속에 나타난 〈冷たい第2の祖国〉

柳美里는 마음의 뿌리 깊은 증오의 원인을, <가족>과 <학교>라고 밝혔다. <가족>은 요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가 〈駄目なお母さん〉이며, <학교>는 학생이란 환경의 사회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冷たい第2の祖国〉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柳美里의 또 하나의 아픔의 원인이 된 〈冷たい第2の祖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작가 柳美里에게는 항상 재일한국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 수식어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柳美里에게는 자긍심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서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흔히들 조국을 ‘어머니’에 빗대어 표현한다. 재일한국인의 조국은 두 나라가 될 것이다. 제1조국이 한국일 것이며, 제2조국이 일본. 일본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柳美里에게 있어서의 조국이란 제1조국이었던 한국보다는 제2조국인 일본의 존재감이 더 큰 비중으로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감싸주어야 할 제2조국인 일본은 柳美里에게 차가운 존재였다. 그야말로 〈冷たい第2の祖国〉

이었던 것이다. 第2の祖国인 일본은 왜 재일한국인에게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인가? 이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재일한국인에 대한 고찰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역사의 시작은 일본 정부가 위협적인 시위로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서, 이에 굴복한 조선이 1876년 2월에 일본과 강화조약⁴³⁾을 체결한 이후부터이다.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에서 거주했던 조선인은 1,000명도 되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이 훨씬 더 많았었다. 따라서 조선인이 조국을 버리고 일본, 만주, 시베리아 등에 건너가는 역사의 기점은 1910년의 한일합방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조선의 자연 자원 뿐만 아니라 자국 내의 노동사정을 완화 할 목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연행, 징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내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 학도병, 징병 등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은 약 2백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일본까지 강제 유출된 인원은 822,111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일본 통치기간을 통하여 이주한 조선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었고, 해방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인수는 220~240만 명에 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독립하였고, 재일한국인들은 기쁨 속에서 조국에의 귀환을 했는데, 그들의 귀환을 책임져야 할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1950년 6·25전쟁 발발,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약 55만 명이 남게 되었다.⁴⁴⁾ 이들이 전후 재일한국인 사회의 첫 주인공들이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국인은 2세, 3세, 4세로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태도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

43) 고종(高宗)13년(1876)에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 개혁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시위 행동 중이던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号)와 강화도 포대와의 충돌 사건인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하여 맺은 병자 수호 조규(丙子修好条規)의 판 이름. 李 熙昇(1990) 『국어대사전』 第5刷発行 민중서림,p.97

44) 강재언 · 김동훈(2000) 『재일한국 · 조선인-역사와 전망』 한림신서,p.114

력보충이라는 자신들의 편의로 인해 입국시킨 후, 한국의 독립 후에는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하에 되도록 많은 재일한국인을 일본으로부터 배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지금도 지방 참정권⁴⁵⁾의 미부여,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⁴⁶⁾, 민족교육권의 보장 제한⁴⁷⁾,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⁴⁸⁾ 등의 차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冷たい第2の祖国〉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柳美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표현되어 있는 『물고기가 꿈』 『생명』 『8월의 저편』의 작품들을 통해 〈冷たい

45) 일본헌법 제 93조 2항은 “지방 공공단체의 長,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사원은, 그 지방 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 10조 1항은 “市町村의 구역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자는, 당해 市町村 및 이를 포괄하는 都道府県の 주민으로 인정한다.” 2항은 “주민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그 속하는 보통지방 공공단체의 역무의 제공을 똑같이 받는 권리를 소유하며, 그 부담을 분임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주외국인도 그 지역의 주민이 되고, 지방선거권을 소유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제 11,18,19조에 있어서 지방선거권의 부여 범위를 일본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윤세현(200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변천과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대학원 참조

46) 재일한국인을 구속, 감시하는 것으로써, 일본은 일본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여, 또는 재류할 수 있는 기간 및 재류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은 입장인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일본국민과는 다른 지위에 있고, 그러한 외국인의 신분관계 및 거주관계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1990) 「在日本韓國人の居住権」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中央本部 참조

47) 재일한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으로서 조국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 내 민족학교는 정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재정원조를 받지 못하고, 민족학교 졸업자는 국립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며, 일본의 학교 내에 민족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시마 아쓰코(1992) 「재일한국인 교육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론집 제 23권』 참조

48) 공립학교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선발 시험의 수험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이 시험에 합격해도 정식교사라는 지위는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상근강사로서의 기회밖에 부여받지 못했다.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무원 직종에 대한 국적요건의 철폐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라서 고용기회는 늘고 있지만 아직은 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94년 동경에서 간호사 관리직시험의 수험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고, 97년에는 고오베시의 사립유치원의 채용내정을 받고도 국적을 문제 삼아 내정취소가 된 예가 있다. 윤용택(2001) 「在日本韓國人の 法的地位」 『전북대학교 법학연구VOL.22』 참조

第2の祖国〉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물고기가 꾸 꿈』

『물고기가 꾸 꿈』柳美里의 자전적 에세이다. 책의 머리글에서 「1992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8년간에 걸쳐 단편을 모은 내용이다. 그 당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작품 속에는, 희곡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의 현실과, 타인들에 대한 증오를 산출해 버린 과거, 학교와 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私が戯曲を書きつづけているのは、私の中に書架に入られない〈ドラマ〉があったのだというしかない。それはこの世の現実と、他者に対する〈憎悪〉、それを産み出すに至った私の過去一つま
り有り体にいえば〈学校〉と〈家族〉にあったのだらうと思った。⁴⁹⁾

내가 희곡을 쓰기 시작 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서가에 넣을 수 없는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실과, 타인들에 대한 <증오>를 산출하게 만든 나의 과거-즉 사실을 말하자면, <학교>와 <가족>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이 고백처럼 혈혈단신 혼자 밀입국한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찾아 외할머니와 형제들과 같이 밀입국한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柳美里는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된 이지메의 공포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믿기지 않겠지만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49)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新潮社,p.216

私は小学校のころから死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た。死を絶望的なものとして捉えていたのではなく、前に向かって一歩踏み出すことだと思っていた。⁵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닌, 절망적인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내딛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역시 죽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열 살부터 스물세 살 때까지의 저녁 무렵 때,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것을 여동생에게 말했더니, 언니 혼자 죽어버리면 되잖아라고 답해 주었다.

十から二十三の夕暮れ時、私はいつも世の中のすべてが死んでしまえばいいと思っていた。それを妹に話したら、お姉ちゃんひとりが死んでしまえばいいじゃない、簡単だよ、といわれ、そうだね、といったものの自分を殺すことは難しかった。⁵¹⁾

열 살부터 스물세 살 때까지의 저녁 무렵 때,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것을 여동생에게 말했더니, 언니 혼자 죽어버리면 되잖아라고 답해 주었다. 간단하네, 그렇긴 하지만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어려웠다.

자전적 에세이 『물고기가 꿈』에서는 열두 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도, 몇 차례나 죽음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큰 요인의 하나인 학교의 이지메에 대해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다. 이지메에 가담하는 인물에는 학교 친구 뿐 만 아니라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일기 속에서 몇 명의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을 죽였다고 적었다. 일기 속에서라도 그렇게 적지 않으면 진짜 죽일지도 모를 것 같다고 했다.

柳美리가 반 대항 릴레이 대회 마지막 주자로 뽑혔을 때 남학생들이 뒤에

50)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新潮社p.231

51) 위의 책,p.29

서 밀어서 쓰러져서 오른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해야만 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날 담임인 여선생님이 미리가 출장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며, 방과 후 운동장에서 열심히 릴레이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있었다고, 다른 반 아이들에게 미리의 몫까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깁스로 딱딱해진 오른 팔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던 그 여 선생님을 한없이 증오했, 책상 안에 들어있던 조각도를 그 선생님의 목에 들이대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라고까지 서술하였다.⁵²⁾

또한, 처음으로 희곡이란 것을 쓴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예회에서 각 반 별로 합창이랑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柳美里에게 뭔가 쓰라고 하셨다고 한다. 국어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평소 항상 주눅 들고 긴장하고 있어 반 아이들이랑 거의 말도 안하고 있던 그녀를 아이들이랑 같이 무대에 세우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일거라고 회상했다. ⁵³⁾

이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지메로 인해 교실 안에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린다.

いつから……?確か……七つのころから……

小学校に入学して数年間、私は教室の中で声を出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担任の先生に名前を呼ばれても、「はい」と返事をするのがきでなかったのです。はじめてもらった通知表の、先生から親への通信欄には、「お友たちとお話するのは嫌いなようですが、〈お花の水やり係〉としてよく頑張りました」とひと言だけ書いてありました。⁵⁴⁾

언제부터일까……? 확실히 말하자면……일곱 살 정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 후 몇 년 간, 나는 교실 안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담임선생님

52)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新潮社,p11

53) 위의책,p.218

54) 위의책,p.195

에게 호명당해도, ‘예’라고 대답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처음 받은 통지표의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통신란에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이 싫은 모양입니다. <꽃 물 주기 당면>의 역할은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줄 적혀져 있었다.

결국, 柳美里는 이러한 집단적인 학교 이지메를 감당할 수 없어, 조퇴와 무단결석이 잦아지자 고등학교 일학년 때 학교로부터 자퇴를 권고 받는다. 자퇴를 권고 받는 장면이 본문 중에서 나오는 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독을 뿌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로 했다. 정말 냉혹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柳美里를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そして高校一年のとき、担任の教師に、他の生徒の迷惑になるから学校をやめてくれといわれた。翌日、父は校長室で、娘をやめさせないでください、と土下座をしてしまった。校長は父を見下ろして、他の生徒に毒をばらまいているんですよ、と冷やかにかにいい放った。⁵⁵⁾

고교 일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학교를 그만 두라고 통보받았다. 다음날 아버지가 교장실에 가서 한번만 선처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교장선생님은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독을 뿌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냉소하듯 말했다.

자퇴를 권고 받았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꿈 많은 여고생의 추억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수업에 빠지며 양호실에 갔던, 서글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繰り返し見る夢がある。私が通っていた高校はミッション系の女子校で、階段を歩くと軋む古い効舎だった、(中略)結局一年のときに放校処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まりいい思い出ではないが、よくその階段を上がり降りした。階段の下には保険室があったからだ。教室にいるのが嫌いで、保険室に入り寝ていた。⁵⁶⁾

55)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p.219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미션계 여고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삐걱거리는 낡은 교사였다……결국 입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아서 별로 좋은 기억은 없지만, 자주 그 계단을 오르고 내렸다. 계단 밑에는 양호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실에 있는 게 싫어서, 양호실에 들어가 자곤 했다.

유치원부터 시작되어 고등학교 입학년 퇴학까지의 사회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冷たい第2の祖国>의 이지메에 상처받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반복을 하던 柳美里였다.

2-2. 『생명』

성인이 된 柳美里에게 여전히 일본 사회는 <冷たい第2の祖国>이었다. 작품 『생명』에서는 태어난 아이의 태아 인지신고 등의 경험으로 겪은 <冷たい第2の祖国>의 내용이 많이 다루어져 있다. 인지 신고를 위해 찾아 간 시부야 구청에서의 일어난 내용이다.

호적계 창구에서 인지 신고서와 아이 아빠의 호적등본, 柳美里 본인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 모자수첩을 책상위에 올렸는데, 남자직원의 와서 외국인 등록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등록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에 그렇다고 해도 뭇 층에서 발행해준다고 해서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태도였다.⁵⁷⁾

“정말 화를 내야겠군요! 왜 호적계의 담당자가 바뀔 땐 마다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는 겁니까!”⁵⁸⁾

56)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p.144

57)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137

58) 위의 책,p.139

이거 말이예요, 외국인 등록필 증명서로는 안 되는데요. 여기엔 당신이 미혼인지 기혼인지가 적혀 있지 않아. 그게 분명치 않으면 신고서를 받아 처리할 수가 없습니
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미혼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오세요.⁵⁹⁾

태아 인지 자체는 그다지 적은 사례가 아니지만, 일본인 기혼 남성과 재
일 한국인인 미혼 여성이라는 경우는 혼치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당연히 일
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태아일 때 아버지가 인지해
주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건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본 국적
을 취득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버지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柳美里는 태어날 아이의 국적을 일본으로하기로 결정한다. 자
기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순을 느끼고 갈등을 겪어 왔
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결국 <冷たい第2の祖国>을 아이에
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일본에서의 재일한국인의 국적법을 살펴보면, 1985년 1월1일부터 새로운
국적법을 발효시켜 국적을 결정하는데 원칙이 되고 있는 혈통주의를 종래
의 부 혈통주의⁶⁰⁾로부터 부모양계 혈통주의⁶¹⁾로 변경했다. 국제결혼이 많
아지고 남녀평등이 대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적법 제 14조 1항
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은 외국 및 일본국적을 갖게 된 때가 20
세가 달하기 이전이면 22세에 달할 때까지, 그 시기가 20세가 달한 이후이

59)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140

60) 부의 국적을 따르는 제도로 부계 혈통주의라고 한다. 여기서는 부가 일본이어야 자녀
가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임.

61) 부·모 중 한 사람만 자격(일본국적)이 되면 자녀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
임.

면 그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국적법의 개정은 순수한 재일한국인의 감소를 조장하였다. 『생명』 작품 속에서도 이런 실정을 표현한 장면들이 있다.

“이런 꼴을 당하니까 모두 귀국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거라고.”나는 걸어가면서 내뱉듯이 말했다.⁶²⁾

실질적으로 1세대는 전체 재일한국인의 6.7%에 불과하고, 3, 4대를 넘어 5세대까지 내려가면서 모국어 습득과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재일한국인 사회의 정체성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민단⁶³⁾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취직을 위해, 결혼을 위해 귀화하는 재일한국인수가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이제 3,4대가 그들 사회의 주류를 이룬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의 80% 이상이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모른다. 일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90%가 넘는다. 일본사회에 동화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라는 견해도 많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심각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어서 대안으로 재일한국인의 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옛날과는 다르게 귀화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또 일본정부는 부모 중 한쪽만 일본인이면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는 신국적법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 매년 1만 여명 이상의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귀화하고 있다.⁶⁴⁾

柳美리의 작품 속에도 귀화 한 재일한국인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파친코 M球殿의 금사장은, 아버지와 금사장

62)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139

63) 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団: 大韓民国を支持する在日朝鮮人の団体。一九四六年、左派の在日本朝鮮人連盟に対抗し、自由主義派・保守派が在日本朝鮮居留民団を結成、四八年大韓民国樹立に伴い現在名に改称。民団..。『広辞苑第4版』(1991) 岩波書店,p.1003

64) SBS스페셜 「나는 나, 재일동포 3,4세들의 새로운 선택」 2007년3월25일 방송

의 아버지 두 사람이 일으킨 M球殿을 물려받았다. 그는 귀화해서 모재벌로부터 이름을 빌려, 일본 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金사장의 세 아들들은 유명사립고교에 입학했다. 실력보다는 그 학교 창설 시 거액의 기부금을 냈기 때문이다. 金사장은 柳美里에게 돈도 없고, 학력도 없으면 재능이 있다 한들 다 쓰레기 같은 거라고 냉소한다. 물론 귀화한 재일한국인이 모두 金사장같은 부류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작품 속에 비뚤어진 사고를 가진 실지 인물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물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일한국인도 있다. 진정한 모습을 찾아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재일한국인 3,4세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의 민단 등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국민들 또한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二十年前、彼の父親の金さんと父はふたりでM球殿を興した。金さんはひとり息子の彼に店を譲り、韓国に帰った。彼は帰化し、某財閥から名前をとり、日本名を名乗るようになった。三人いる息子は皆名刺の有名私立高校に入学した。その学校の創設時に多額の寄附をしたのだ。

「金もない、学歴もない、才能なんてあったってそんなのゴミみたいなもんだ」⁶⁵⁾

2년전, 그의 부친이랑 아버지 두 분이 M구전을 창업했다. 金사장은 독자인 그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귀화했고, 모재벌에서 이름을 따서, 일본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세 명의 아들은 모두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의 창설시에 거액의 기부를 했던 것이다.

「돈도없고, 학력도 안 좋으면, 재능따윈 있어도 쓰레기 같은 것이야.」

갈등 속에서 태어날 아이의 국적을 일본으로 정한다. 이러한 柳美리의 어려운 선택을 『생명』 작품 속 ‘18.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공포’의 주 해석⁶⁶⁾

65)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p.37

66)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142 각 주 내용

에 “자신이 한국국적을 가짐으로써 너무도 모질고 오랜 차별의 설움을 받아왔으므로, 아기에게는 그 설움을 안겨 주고 싶지 않다는 심정과, 아기의 부친이 일본인이어서 부득이 일본 국적을 취득케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도로 해석됨”이라고 설명되어져있는데 납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태어날 내 아이의 국적을 일본으로 하는 데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 가며 유치원에서 일본 동요를 부르고, 초등학교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제창할 것이다. 나와 아이의 국적이 달라지면, 아이는 홀로 새 호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의 결단을 고맙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얼마간의 상실감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남으리라.⁶⁷⁾

그리고, 『생명』 속에서 국적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의 내용이 있다.

지방 참정권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⁶⁸⁾ (생략)

재일한국인에게는 일본 사회 내에서 완전한 지방참정권⁶⁹⁾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지방자치제참정권은 일본의 내정에 관련된 권리이자 일본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라는 것이므로, 민주당⁷⁰⁾등에서 ‘재

67)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128

68) 위의책,p.142

69) 민단중앙본부 국제국에 의한 조사에서 2004년 5월 현재, 1都1道1府35縣(15市1特別區78町22村)이 조례를 제정하여 정주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윤세현(200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변천과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대학원 참조

70) 民主党: 一九四七年日本進歩党を改組して結成された保守政党。翌年総裁芦田均を首班として、社会党・国民共同党との連立内閣を組織。四九年分裂。一九五四年、分裂した自由党の一部と改進黨との合同により結成された政党。総裁鳩山一郎。翌年末、保守合同により自由民主党となる。

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참정권이 주어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인권후진국 일본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실감할 뿐이다.

이와 같이 『생명』에서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살펴보았다. 국적법이나 참정권 등의 예로 알 수 있듯이, 일본에 있어 재일한국인은 배척과 동화의 대상인 것이다. 1980년 이후 한국정부의 노력과 재일한국인의 경제력확대 등으로 인해 조금씩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冷たい第2の祖国> 임에 변함은 없다.

2-3. 『8월의 저편』

柳美里는 근원을 찾기 위해 846쪽 분량의 장편 『8월의 저편』을 출간하였다. 이 작품은 집요하게 추구해온 ‘가족이야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은 마라톤 선수였던 외조부의 이야기를 골격으로 4대의 연대기를 그린 것으로, 4명의 박수무당이 외조부의 혼을 불러내는 곳 한판을 벌인다. 손녀인 柳美里가 옆에 서서 외조부와 교신을 시작한다. 외조부의 녀이 무녀에게 씌어져 무녀의 입을 통해 할아버지의 음성이 흘러나온다. 무녀를 통해 죽은 친족들의 혼백이 차례로 등장해 柳美里에게 말을 걸어오며 일족이 만들어낸 애증의 가족사를 풀어내는 것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2대에 국한했던 가족의 연대기를 4대로 늘림으로써 일제 식민지치하 등 역사를 개입시켜 가족을 사회와 국가라는 체제 안에 놓이게 했다.⁷¹⁾

지금 <冷たい第2の祖国>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한국인은 세 부류로 나

『広辞苑第4版』(1991) 岩波書店,p.2482

71) 연합뉴스 「연합인터뷰-유미리편」 2004년8월9일

누어진다고 그녀는 작품 속에서 서술했다.

첫 번째가, 부모의 교육방침으로 엄격하게 한국인으로서 자라 민족학교에 다니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도 일본 성으로 개명하지 않는 부류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적을 취하고, 일본 이름을 쓰고, 자신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부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전혀 말 하지 못하는 부류이다. 柳美里는 자신이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했다⁷²⁾. 조국의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이 전형적인 판쵸ప్ప리⁷³⁾이며, 조국 문화의 어원인 말(한국어)에 무관심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희곡을 쓰고 극작가로서 일을 하는 생활 안에서 한국이라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작품을 통해서 柳美里와 재일한국인의 근원과, 뿌리 깊은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 역사의 시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柳美里는 무당에게서 자기 이름의 근원에 대해서 접하게 된다. 미리라는 이름이 밀양의 지명과 관련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대화로 인해 근원 찾기에 나섰던 柳美里에게는 큰 갈증 해소가 되었으리라.

유미리 내 이름?

무당3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너 할배의 할배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밀양의 지명은 미리였다.

무당2 미리벌이지.

72)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新潮社,p.220

73) 판쵸ప్ప리 【반쪽발이】 在日韓国・朝鮮人に対して使われる、半分日本人であるという意味の侮蔑語の意味で使われる。 <http://www.ja.wikipedia.org/> 참조

무당3 너는 그 지명을 좁어지고 있어.

무당2 이름에서 도망칠 수는 없지.

무당3 약속하겠나?

유미리네....

무당3 약속한 거재?

유미리 약속합니다.

무당3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⁷⁴⁾

이 작품의 시대적배경은 일제강점기이며, 공간적 배경은 경상남도 밀양시이다.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일본은 <冷たい第2の祖国>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자국 내의 노동사정을 완화 할 목적⁷⁵⁾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 징용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감언이설로 한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장면이다.

어언 해가 기울자 하나 빠졌다 둘 빠졌다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에 낫선 남자가 다가오데에 남자가 혼자 남은 나한테 더듬더듬 조선말로 말을 걸테에 일본의 군복 공장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돈을 많이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을 입어요 3년 일하면 집에 돌아와요 그전에 시집가면 언제든지 집에 와요⁷⁶⁾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백 엔쯤 모으는 꿈이 아니야. 효도하는 셈치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지. 부모란 언제까지 살아 있는 게 아니니까. (생략)”⁷⁷⁾

심지어는 온갖 감언이설에 속임을 당해 일본 땅을 밟았다가 위안부라는

74) 유미리·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上』 동아일보사, pp.36-37

75) 전시경제【戰時經濟】전쟁수행을 위하여 편성하는 국민 경제. 곧 소비 절약·생산 증가 등을 꾀하는 계획적·통제적인 경제. 李 熙昇(1990) 『국어대사전』 第5刷発行 민중서림, p.3189

76) 위의책, p.39

77) 위의책, p.68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김영희의 한탄도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뒷자리에 내 또래 여자아들이 앉아 있었기에 경성 역에서 탕궐지에
나처럼 군복 공장에 일하러 가는 애들이겠거니 했어예 다음 역은 대련⁷⁸⁾ 십구시 사
십오분 오후 일곱시 사십오분 도착입니다 차장이 그렇게 외치며 다니데예 대련에서
하룻밤을 자고 배를 탕궐에 도착한 항은 시모노세키가 아니고 상해에서 양자강을 거
슬러 도착한 곳은 무한⁷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는데 간
편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예 내가 받은 것은 빨간 것이었어예 그 다음에 생긴일은
말로 할 수 없어예 딱 한 사람한테만 신세타령을 했지예 바로 이우철 씨라예⁸⁰⁾

이렇게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을 속여서 끌고 가서 미안하거나 부끄러워하
기는 커녕 뻔뻔스럽게 당당한 그들의 태도에서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군의관이 조선에서 모집 해 온 소녀들을 모아놓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
하기 위해 무수한 국민을 소집하여 최전선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너
희들 또래의 젊은이들이 부모와 아내를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
하고 있다고 그 수고를 뭐라 치하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 병사
들을 아내와 가족을 대신하여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뿐이라고 잠
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찾는 병사들에게 아무쪼록 친절하게 대
해주기 바란다고 소녀들에게 명령하듯 말한다. 왜 조선의 소녀들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일본군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지, 이 억지 논리에 분노를
넘어서 처절한 슬픔까지 느끼게 한다.

78) 大連: 중국 요령성(遼寧省)의 남부, 요동반도(遼東半島)의 남단에 있는 상항(商港). 여대
시(旅大市)의 동북 지역을 차지하며, 장춘(長春)철도의 종점임. 제강·조선·기계·화학·방
직·식료품 등의 공업이 성함. 중국을 따옴. 李 熙昇(1990) 『국어대사전』 第5刷發行 민중
서림, p.834

79) 武漢: 중국 호북성(湖北省)동부의 도시인 무창(武昌)·한구(漢口)·한양(漢陽)의 세도시가
합병하여 된 성(省)직할시(直轄市). 장강(長江)중류의 최대 요충이고 상공업 지대임. 李
熙昇(1990) 『국어대사전』 第5刷發行 민중서림, p.1268

80) 유미리·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上』 동아일보사, p.40

결국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안부가 되어야했던 김영희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엄마, 오빠, 친구들을 볼 날이 없다고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어 한 많은 생을 마감한다.

작품 속에서 김영희는 柳美里의 삼촌인 이우근과 영혼 결혼 곳을 하게 되어 부부로 맺어진다.

또한, 일본국내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독한 황국신민화⁸¹⁾만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 소녀는 정신대에 지원해서, 미쓰비시 중공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 봉투에는 전철 샷 밖에 안 들어 있어서, 밀양의 어머니가 매달 거꾸로 돈을 보내고 있다고 한탄하는 장면이 있다. 심지어 전철 샷 밖에 안 든 봉투에는 “우리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다고 써 있다고 하니 그녀의 어머니의 한탄이 슬프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 내 통치에 있어서 철저한 동화정책을 벌여왔다. 한국어 사용을 금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독해져갔다.

우철은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 긴 한숨을 뱉었다. 일단 교문을 들어서면 조선말을 쓸 수 없다. 조선말은 금지돼 있는 것이다. 다케다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이다. 조선놈들에게 글자 같은 것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는 태도를 지닌 선생이 많은데 다케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정열을 쏟고 있다. 그래서 바보 취급당하면서 적당히 가르치는 선생들보다 성깔이 더럽다.⁸²⁾

81) 황민화정책 【皇民化政策】主に十五年戦争期に朝鮮・台湾・沖縄および占領地などで、住民を忠良な皇民にするためにとられた政策。特に朝鮮で「皇国臣民の誓詞」の斉唱, 日本語の使用, 神社参拜, 姓名などを日本風に改める創氏改名などを強制した。『広辞苑第4版』(1991) 岩波書店, p.885

82) 유미리·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上』 동아일보사, p.105

이렇게 일본에게 당하고만 있던 그 시대의 조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작품 속의 인부들의 대화 장면에서 일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잘 묘사되어져있다.

“아이고, 왜놈 손에 죽은 동포는 숨도 못 쉬고, 살아 있는 우리들은 숨을 죽이고 있고, 강도들만 당당하게 숨을 쉬고 있으니, 아이고 빌어먹을!”

“조선에서 나는 쌀은 싸그리 일본으로 들고 가버리니, 그야말로 보릿고개다.”

“우리 소작인들한테는 탈곡기하고 뉘 담았던 바가지밖에 안 남았다.”

“2월에는 폴뿌리하고 나무껍질로 연명을 했으니, 살아 있는 하루하루가 기적의 기간”

“왜놈들은 조선 사람들한테는 눈도 없고 귀도 없다. 있는 것은 입하고 손발뿐이다.”

“아이구야, 바른말하네. 명령하고, 때리고, 차고.”

“욕하고, 움아매고, 짓밟고.”

“눈하고 귀도 있다. 하루 24시간 망보고 무슨 소리 하나 엿듣고 있다 아이가.”⁸³⁾

이 내용에서, 일본인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들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때리고, 차고, 욕하고, 움아매고, 짓밟고 하는 일본인의 만행에 매일매일 굶주림과 두려움에 힘겹게 살아가던 조선인의 생활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황민화 정책을 강조하며, 국민징용령과 창씨개명⁸⁴⁾ 등 민족말살 정책에 혈안이 되었다.

1939년 7월 8일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어, 조선, 대만, 사할린, 관동주, 남양 등의 식민지 관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각기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83) 유미리·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上』 동아일보사,p.384

84) 창씨개명【創氏開明】 1940년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 씨명(氏名)으로 강제 변경시킨 일. 1946년 조선 성명 복구령(復旧令)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음. 李熙昇 (1990) 『국어대사전』 第5刷発行 민중서림,p.3572

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조선과는 무관한 전쟁에 끌려나가 희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0년 2월 11일에는 창씨제가 실시되어, 미나미(南) 총독 부임 이후 통치의 근본 지표로 제창해온 ‘내선일체’를 보다 공고히 하지 위해 반도인에게 가문의 창립과 성 변경의 자유를 부가하는 창씨개명에 관한 법률(창씨)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⁸⁵⁾

일본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선일체, 황국신민 등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함이었지, 포용이 아니었다. 작품 속에 나오는 두 일본인의 대화에서 그들의 잔인한 침략의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조선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적인 힘으로만 통치하려고 했던 잔인한 나라, 비열한 나라였던 것이다.

“일본의 피가 흐르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 일본의 정신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반도에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⁸⁶⁾ 내선일체의 통합 이념을 침투시켜 이상을 실현하는데 33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생략)……결국 국어⁸⁷⁾입니다. 국어밖에 없어요. 국어로 말해야 비로소 일본적 정신을 육성할 수 있고, 국어란 토양에서만 애국을 계몽할 수 있는겁니다. 조선 사람도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시행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1940년에는 창씨개명을 실시하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생략)……우리가 통치자의 일원이 돼야 하는 거죠”⁸⁸⁾

그들은 조선을 침략한 이후, 점차적으로 침략자의 본성을 드러내, 전시경제를 위해 조선의 노동력을 착출 해 갔으며 심지어 꽃다운 처녀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위안부로 만들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약탈해 갖고,

85) 유미리·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下』 동아일보사,p.11~12 내용

86) 일시동인 【一視同仁】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함. 李熙昇(1990) 『국어대사전』 第5刷發行 민중서림,p.2993

87) 여기서는 일본어를 뜻함.

88) 위의책,p.105

청년들을 국민징용령으로 전쟁터에 내몰았으며, 조선어 말과 글의 사용을 금하고, 이름까지도 빼앗아가는 악랄하고 잔인한 <第2の祖国>이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작품 『8월의 저편』 통해서 柳美里와 재일한국인의 근원과, 뿌리 깊은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 역사의 시작을 살펴보았다.

남편을 찾아 자식들을 데리고 밀항선을 타고 할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어머니와, 스물 살 때 일본으로 혼자 건너와 파친코에서 일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재일한국인 2세로 태어난 柳美里. 그녀는 앨범 속 할아버지를 보며 「아빠도 엄마도 할배도 할매도 한국 사람이니까,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⁸⁹⁾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柳美里에게 ‘제 1의 조국’이다. 그리고 재일한국인 柳美里에게 일본은 ‘제 2의 조국’이다. 어쩌면 ‘제 1의 조국’ 한국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한 ‘제 2의 조국’이 더 친밀할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인들에게, 또한 재일한국인들에게도 멸시와 편견을 버리지 않는 <冷たい第2の祖国>이며, 柳美里에게도 고통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결코 <温かい第2の祖国>은 될 수가 없었다.

「나는 집에서와 같이 마음을 닫았다. 재일한국인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게 있어 거주지를 한 발 나온 세계는 이국이 되며, 나는 이방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⁹⁰⁾라고 그녀는 작품 속에서 서술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冷たい第2の祖国>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89) 유미리·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下』 동아일보사,p.408

90)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新潮社,p.63

III. 결 론

柳美里의 작품에는 불륜, 원조교제, 스토키, 자살 등의 어두운 요소가 많다. 또한 작품의 주인공들은 ‘불안’, ‘공포’, ‘타인에 대한 혐오감’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柳美里를 이해하기 위해 〈駄目なお母さん〉과 〈冷たい第2の祖国〉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駄目なお母さん〉의 관점에서는 『가족시네마』, 『비와 꿈 뒤에』, 『생명』의 세 작품을 가지고 각 각의 어머니의 모습을 고찰해 보았다.

『가족시네마』에서는,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카바레에 일하러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가출을 하여 그 남자와 동거를 하고, 가사와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가슴에 실리콘을 넣고, 항상 거울로 외모를 체크하며, 자기가 버린 남편의 재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駄目なお母さん〉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柳美里의 생모를 모델로 그린 작품이다.

그리고 『비와 꿈 뒤에』에서는, 츠키에라는 타인의 〈駄目なお母さん〉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츠키에는 처자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남자를 좋아하여 아메를 임신하게 된다. 임신 중에 그 남자와는 헤어지고, 중학교 졸업생인 토모하루를 우연히 만나 토모하루와 결혼 해 아메를 낳고 2년 간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고 만다. 그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6학년이 된 아메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토모하루가 진짜 아빠가 아니며, 진짜 아빠가 따로 있으니 진짜 가족끼리 이제 같이 살자고 울면서 애원한다. 아메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츠키에는 너무나도 한심한 〈駄目なお母さん〉이다.

『생명』에서는 柳美里 자신의 〈駄目なお母さん〉 모습이 나타나 있다. 유

부남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남자와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임신을 하게 된 柳美里. 임신을 기쁨보다도 태속의 아기로 그 남자의 마음을 묶어두는데 이용하려고 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낳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중절을 결심하기도 했다. 생명은 존엄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경시는 어머니로서의 자격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駄目なお母さん〉의 柳美里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학대를 해 왔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학대의 세대 간 연쇄’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인 〈冷たい第2の祖国〉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학교 이지메’와 일본 사회에서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역사를 통해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는 『물고기가 꿈』 『생명』 『8월의 저편』의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한일합방이후, 일본은 한국의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전시경제(戰時經濟)하에서의 심각한 자국 내의 노동사정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 징용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국인은 약 55만 명이 되었으며, 이들이 전후 재일한국인 사회의 첫 주인공들이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국인은 2세, 3세, 4세로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다. 재일한국인이라 불리워지는 이들에겐 지방 참정권의 부여 문제,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휴대 의무문제, 민족교육권의 보장, 직업선택 및 경제 활동의 자유의 보장문제 등 차별이 남아있으며, 뿌리 깊은 편견으로 인해 일본으로 귀화하는 수가 늘어나며, 민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柳美里는 자신이 일본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는 재일한국인이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는 일본 국적을 갖게 한다.

「언젠가는 나의 결단을 고맙게 생각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얼마간의 상실감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남으리라.」⁹¹⁾ 결국 柳美里는 아이에게는 〈冷たい第2の祖国〉의 슬픔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柳美里는 자신의 아픔과 문학의 고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私が魚だしたら、水は痛みだ。痛みがなくなったら、私は書けなくなる。そして書くことで痛みの水位はさらに増していく。私は私を私自身から救い出そうなど考えてはいない。⁹²⁾

내가 생선이라고 한다면, 물은 아픔이다. 아픔이 없어진다면, 나는 적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아픔의 수위는 점점 늘어난다. 나는 나를 내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구해보자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

작가 柳美里와 그녀의 작품들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은 위의 인용한 고백처럼, 그녀의 불우한 환경 즉 ‘차별된 個人史’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柳美里의 작품 속에 나타난 〈駄目なお母さん〉과 〈冷たい第2の祖国〉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한 〈駄目なお母さん〉과 〈冷たい第2の祖国〉의 두 요소가, 柳美里의 ‘차별된 個人史’의 깊은 아픔과 고통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재일한국인 작가 柳美里의 문학적 고뇌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柳美里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91) 유미리·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상사,p.128

92)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新潮社,p.11

【 참고 문헌 】

- 柳美里(1997) 『家族シネマ』 講談社
- 柳美里(2000) 『魚が見た夢』 新潮社
- 柳美里(2005) 『雨と夢の後に』 角川書店
- 유미리, 김유곤 옮김(2000) 『생명』 문학사
- 유미리, 김난주 옮김(1997) 『가족시네마』 고려원
- 유미리, 김훈아 옮김(2007) 『비와 꿈 뒤에』 소담출판사
- 유미리, 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上』 동아일보사
- 유미리, 김난주 옮김(2004) 『8월의저편下』 동아일보사
- 강재연·김동훈(2000) 『재일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한림신서
- 변화영(2007) 「재일 한국인 유미리의 소설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45집』, pp.505~538
- 김경미(2005) 『유미리 작품속에 나타난 「가족붕괴」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보람(2010) 『유미리(柳美里)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적 양상과 의식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세현(2004)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변천과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대학원
- 시마 아쓰코(1992) 「재일한국인 교육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론집 제 23권』
- 윤용택(2001) 「在日本韓國人の 法的地位」 『전북대학교 법학연구VOL.22』
- 呉順英(2008) 「九十年代の柳美里の小説と同時代の日本の家族—「もやし」「潮あい」「家族シネマ」を中心に—」, 『日本文化研究・第27』
- 中村伊知郎(2001) 柳美里小説の反社会性と需要産出構造, 『동서대학교논문집』
- 「今月の人—柳美里」 『すばる』 1996年7月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歴史を伝える運動」中間報告書,(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中央本部, 2001)

연합뉴스 「연합인터뷰-유미리편」 2004년8월9일

SBS스페셜 「나는 나, 재일동포 3,4세들의 새로운 선택」 2007년3월25일 방송

「재일한국인작가 유 미리」 『주간한국, 생활/문화』 2011년3월16일

NHK. 世代間連鎖を絶つ! 「虐待カウンセリング」作家・柳美里の500日のドキュメント

2011년5월15일 방송



